

# 김원중

##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개발자로서의 도약

2020년 2월부터 약 2년 9개월간 캐나다에 체류하며 어학연수와 현지 근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초반에는 영어 실력 향상과 현지 적응을 목표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요식업체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조리 및 식재료 준비, 메뉴 기획, 직원 관리, 매장 운영 시스템 정비 등 부매니저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국적과 성향의 동료들과 협업하며 문제 해결력과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일상 영어 회화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역할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지내며 자연스럽게 제 성격과 업무 스타일에 대한 고찰이 깊어졌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고와 정적 집중력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직무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컴퓨터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TOEIC 자격도 취득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개발자로서의 진로 전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개발을 공학으로 바라보다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은 건축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Java를 배우며 객체지향 언어의 유연함과 구조적 사고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더 나은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Spring/Spring Boot를 접하면서, 많은 개발자들의 경험이 녹아든 프레임워크 구조 속에서 효율성과 확장성이라는 키워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학적인 사고’가 실제 개발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 시스템을 설계하며 배운 실전 감각

Servlet/JSP 환경에서 진행한 모임 추천 웹 프로젝트는 저에게 있어 실질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용자 위치, 선호도, 기상 정보를 종합해 최적의 모임을 추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전체 시스템을 기획하고, DB 설계부터 백엔드 로직, 프론트 연동까지 주도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Kakao Maps API를 활용해 지도 기반 기능을 구성하면서, 외부 API와의 연동이 단순한 연결을 넘어 전체 시스템 설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객체지향적 사고와 실용적 구현이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 문제 해결은 구조적 분석에서 시작된다

저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순히 ‘수정’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제의 구조와 흐름을 추적하며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Java의 절차지향적 특성을 고려해, 오류 발생 시 코드의 상위 흐름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며 근본 원인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에서 도식과 순서도를 활용해 팀원들과 기술적 개념을 공유하며 협업을 이끌었던 경험은, 기술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에서도 저만의 강점을 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성향과 그 안에서의 성장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은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고민하고 정리하며 몰입하는 성향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일단 시도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유연한 태도도 함께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목표와 성장 방향

앞으로 저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기능 구현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무 운영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입사 이후, 1년 이내에 Docker, AWS, GitHub Actions 등 운영·배포 기술을 일과 병행하며 학습하고, 서비스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공학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을 통해 팀과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